

# 역사의 '현장성' 담긴 古文書의 세계

## 許興植교수의 「한국의 古文書」에서

고문서는 뒷날에 독자들이 읽을 것을 전제로 편찬된 여느 저술이나 관찬기록과는 달리 당시의 인간들이 살아가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전해준다. 우리나라에서 古文書學이 형성된 것은 근래의 일이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성과들이 나와 옛 사회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한국학 각 분야에서 그동안 미처 손을 대지 못했던 각종 史料의 발굴·정리·연구 작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다. 최근 許興植교수(45·경북대 사범대 역사교육과)가 '대우학술총서'의 하나로 내놓은 「한국의 古文書」(신국판 412면)도 그러한刻苦의 연구성과이다.

「한국의 古文書」는 ① 한국고문서학의 이론 ② 고문서의 분석과 비판의 실제 ③ 고문서의 판독과 수록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①은 우리나라 中世고문서에 대한 개론, ②는 저자가 그동안에 분석한 고문서를 자료비판과 실제이용에 접근시킨 10편의 논문이고 ③은 한글창제 이전의 吏讀文書를 중심으로 판독해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중세사나 국어사 연구에 도움이 되게끔 꾸며진 전문학술서이지만, 첫째 부분에서 고문서의 정의와 범위에서부터 분류, 자료검증, 정리방법, 전래과정과 소장처에 이르기까지를 광범하게 소개함으로써

써 교양으로서의 고문서 인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우리나라 '고문서학'의 성립과정

일반사나 특수사(분류사) 연구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요소는 '관점'과 '방법' 그리고 '자료'의 세가지다. 자료 중에서도 고문서는, 뒷날 독자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편찬한 문집이나 여느 저술과는 달리, 당시의 인간들이 살아가던 생생한 현실성·현장성을 담고 있다.

고문서란 글자 그대로 옛 文書란 뜻이다. 서양에서는 고문서라면 중세까지의 문서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1592) 이전의 문서를 고문서로 정리하기도 하고, 특수한 경우는 최근의 문서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다만 대체로 시간상으로 오래된 것일수록 최소가치가 큰 것이 사실이다.

許교수는 우리나라 고문서의 시대구분을 4시기로 나눈다. 첫째는 고대로부터 조선초기까지, 둘째는 한글창제 이후 임진왜란까지, 셋째는 왜란 후 開港期(1876)까지, 넷째는 개항기 이후 최근까지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문서학'이 학문으로서 형성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史學의 보조자료로서 고문서를 이용하거나 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예가 드물다. 고대나 중세의 寺院문서는 조선시대에 거의 훼손되었고, 조선시대의 書院문서는 대부분 일제와 해방 후의 혼란통에 흩어지고 말았다.

고문서는 일제가 우리땅을 지배하면서 조선의 서화나 古物의 일부로서 수집되어, 그들

의 조선통치를 위한 사회조사작업의 일환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일제에 의한 최초의 고문서 정리는 조선총독부의 「朝鮮寺刹史料」(상·하, 1912)이다. 여기엔 충남·전북을 제외한 전국의 사찰문서가 대량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멸된 고려시대의 고문서도 들어 있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뒤이어 일제가 완성한 「朝鮮古籍圖譜」(1918)에도 약간의 고문서가 실려 있으며, 「朝鮮史料集眞」(전 6권·해설집 1권, 1936)에 실린 자료 중 절반이 고문서이다.

일제 때의 한국 고문서는 불교관계가 다른 종교의 것보다 많이 정리되었다. 특히 1930대에 각 사원에서 신식활자로 많은 寺誌를 간행했는데, 여기에 사원이 소장하던 많은 고문서가 정리되었다. 그러나 고문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를 학문적인 분야로서 확립시키려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 고문서학을 탐색한 최초의 학자는 李丙燾교수였다. 그는 고문서학을 대학원의 강좌로 설치하고, 고문서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全海宗교수도 일본인이 敦煌문서를 분석한 연구방법의 연장선상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1960년대에 들어 국학에 대한 자각이 고조되면서, 奎章閣에 있는 경제관계 문서와 대외관계 문서를 포함한 목록이 정리되었고(全海宗 「한국근세대외관계문헌備要」·1966 / 韓洙勳 「한국경제관계문헌集成」·1967), 특히 사회경제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문서를 연구자료로 이용한 연구성과(金容燮 「조선후기농업사연구」·1970)가 나오기도 했다. 또

서울대와 국립도서관의 고문서 정리가 시작되면서 白麟·金若瑟씨 등에 의해 이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고문서학 체계 수립한 「研究序說」

이러한 분위기에서 최초로 한국 고문서학의 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한 학자는 金東旭교수였다. 그는 스스로 고문서의 수집·보관에 힘썼을 뿐 아니라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후손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고문서학 전반에 관한 최초의 논문인 「古文書의 樣式的 研究序說」과 「李朝古文書의 分類에 대하여」 등 2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이들 논문과 함께 중요한 고문서를 사진으로 부록해 「古文書集眞」(1972)이란 단행본을 내놓았다. 고문서의 정리와 분류법에 중점을 둔 金교수의 이 저술은 당시까지의 한국고문서학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보여준 것으로, 그 후의 고문서 정리·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70년대 전반기에 고문서를 이용한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로는 조선후기의 사회사를 연구한 崔在錫교수와 법제사를 연구한 朴秉濠교수의 일련의 논문이 두드러진다. 특히 崔교수는 조선전기의 分財記를 이용, 조선사회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렸는데(「조선시대 相續制에 관한 연구」·1972), 이같은 선구적인 성과는 그 후의 연구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1년도는 한국고문서학에 기념비적인 해였다고 할 수 있다. 嶺南大 민족문화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安東 수물지역의 고문서를 정리한 李樹建교수의 「慶北地方古文書

코주부 金龍煥의 그림과 글

## 韓國의 風俗畫

百聞이 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듯이 風俗畫는 그림과 설명이 곁들여야만 時代의 분위기와 現場感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책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보아서 우리나라 固有 生活風俗을 새롭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엮은 한 권의 生活史이다.

원색화보 / 금박양장 / 12 절판 / 210쪽 / 값 15,000 원

## 韓國의 風俗畫

GENRE PICTURE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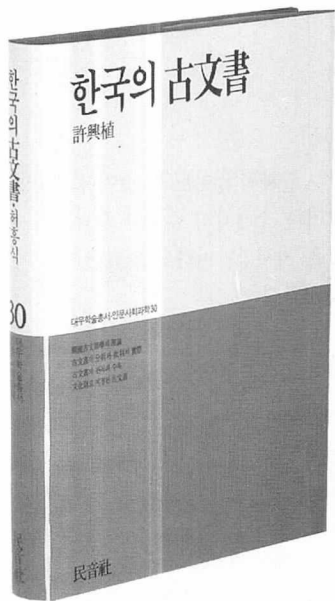
M. 프리 윌러 처음  
韓 永 鏞 옮김  
올림픽 2연패 금메달리스트  
Samy Lee의 빛나는 삶

# 작은 거인의 승리

이 책은 한국계 미국인 의사인 Dr. 새미 리의 일대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것이다. 그는 아시아계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2연패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올림픽 사상 유래 없는 신화적 인물이 되었다.

신국판/336쪽/3,000원

민문고 115(0) - (0)41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  
TEL. 675-1981 - 3, 675-1981-2



集成」이 간행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崔承熙(최승희) 교수의 「韓國古文書研究」가 간행된 것이다.

전자는 안동지역에 국한된 조사라는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그간의 수집경위뿐만 아니라 고문서의 소장이 어떤 여건 아래에서 가능했었는가 하는 사회적 규명도 아울러 이루어 놓고 있어, 우리나라의 유교적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한편 후자는 방대한 자료를 예시하면서 고문서의 형식을 세분하여 분류·검토하고 있는데, 주로 규장각에 있는 고문서를 본보기로 제시하고 판독과 해설을 더함으로써 고문서의 여러 형태를 접하기 쉽게 시도한 점이 특색이다.

#### 인접학문에도 효용 큰 고문서

고문서학은 사학 외에 금석학이나, 서예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고문서의 書體

와 字型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문서는 史書의 검증을 위해서나 사서가 수록하지 못한 분야의 사료로서 중요시된다. 官撰기록에 비해 보다 폭넓은 계층과 여러 학문의 범위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시대의 家門에 전래된 고문서는 최근에 이르러 분석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토지와 재산은 조선중기에 이르러 嫡長子 위주의 상속제로 변했고 그 이전에는 均分相續의 형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조선시대의 고문서를 통해 조선중기에 이르러 入養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찬기록이나 사서로써는 규명하기 어렵다.

고문서는 원래 국가의 부속기관이나 사원·향교·서원·양반가문의 후예 등에 소장돼 있었으나 점차 전통사회의 와해와 함께 흩어져 버리고, 오늘날에는 대학의 도서관과 박물관, 정부기관 및 산하연구단체,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에 주로 소장돼 있다. 집중적으로 소장돼 있는 곳으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국민대·영남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교회사연구소 등이 꼽힌다.

저자 許興植(허흥직) 교수는 고문서 중에서도 고려의 호적만을 사회사에 이용한 「고려사회사연구」(1981)를 비롯, 「고려불교사연구」 「고려과거제도연구」 「한국금석전문」 등 일련의 중세사 연구저서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에 교환교수로 부임, 「한국불교사」를 강의하고 연말에 귀국할 예정이다.

## '대쪽 성품의 선비정치인'의 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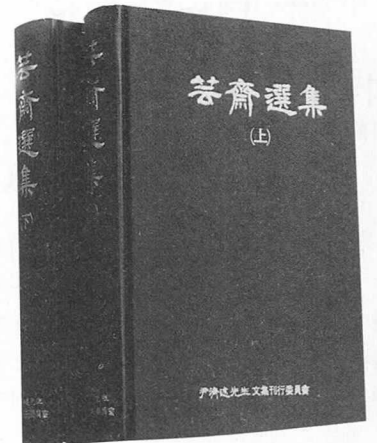
故 尹濟述씨 유고 모은 「藝齋選集」 간행

대쪽같은 성품의 선비이자 외골 야당 정치인으로 파란많은 한 시대를 一以貫之했던 윤재 尹濟述(윤재) 선생의 유고를 모은 「藝齋選集」이 윤재술선생문집간행위원회(위원장 柳靑)에 의해 2권으로 간행됐다. 생전의 동료·후배정치인들과 제자·후학들의 정성으로 엮어진 「윤재선집」은 고인이 남긴 회고록·시·수필·연설문·어록과 일화 등을 모두 망라,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전반 생애와 인간적인 편모, 그리고 漢學에 조예가 깊고 書道에도 일가를 이루었던 그의 또다른 일면을 躍如하게 되새겨 준다.

1904년 전북 金堤에서 출생한 그는 15세 때, 界火島에 은거하던 호남의 巨儒 田良齋 문하에서 2년반 동안 수학했다. 그보다 앞서 12세 때는 心農 趙友鍾(조우종) 문하에서 서도를 배워 '소년 명필'로 이름을 날렸는데, 뒷날 「歐陽詢·米芾·黃山谷體를 종합」한 독특한 「윤재體」를 확립하는 기초를 이때 닦은 셈이다.

그후 17세 때 서울에 올라와 中東學校를 거쳐 당시 수재들이 모였던 東京高師(동경고사) 영문과에 입학, 26세(1929)에 졸업하자마자 모교인 중동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해 10년간 재직했고, 이후 해방되기까지 普成중학교 교사, 城南중학교 교감을 지내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해방 이듬해 전북 裡(리)에 南星중학교가 설립되자 초대 교장으로 부임, 8년간 재직하면서 명문교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 무렵 「敎訓은 따로 필요없다. 내가 곧 교훈이다」라고 숄선수범, 학생들로부터 '걸어다니는 교훈'이란 별명을 들었다는 일



화가 전한다.

그러다가 1954년 김제에서 제3대 민의원에 당선,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이래 72년 유신선포로 8대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6選議員으로서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하기까지, 민주당 정책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민정당 중앙상위 의장 등을 거쳐 6대 이후에는 선거구를 서울 서대문구로 옮기고 민정당 원내총무, 국회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곧은 말 잘 하는" 외골 야당인으로 정계를 주름잡았다. 지난 83년 팔순 잔치에는 많은 정치인과 친지·후학·제자들이 모여들어 그의 덕망을 기렸다. 86년에 향년 83세로 영면.

「윤재선집」에는 그의 생애에서부터 정계에서 물러나 글씨·남시·바둑으로 유유자적하기까지의 '회고록'과 '評傳'을 비롯, 신문·잡지에 기고한 글들과 국회에서의 발언, 지상對談, 일화 등과 함께 그가 남긴 遺墨과 정치인 시절의 사진들이 화보로 담겨 있어,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더욱 애틋하게 한다. (成志社刊·신국판 총1,302면·비매품)

# 저는

편집분야로의  
진출을  
원합니다!

성명 : 서울편집디자인학원생  
나이 : 일 부러먹기 가장 좋은 나이  
성별 : 남+녀  
경력 : 실무 2년 이상의 실력과 대등  
취미 : 편집  
성격 : 책 만들기에 적절한 성격 소유자  
근무희망처 : 책 만들기와 씨름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기타 : 정말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671-8317

편집디자인 정규반 제2기 모집

◇모집기간 9월1일~9월30일  
◇개 강 10월 5일

관한 미술 편집 디자인 학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455-1  
672-1841, 1842